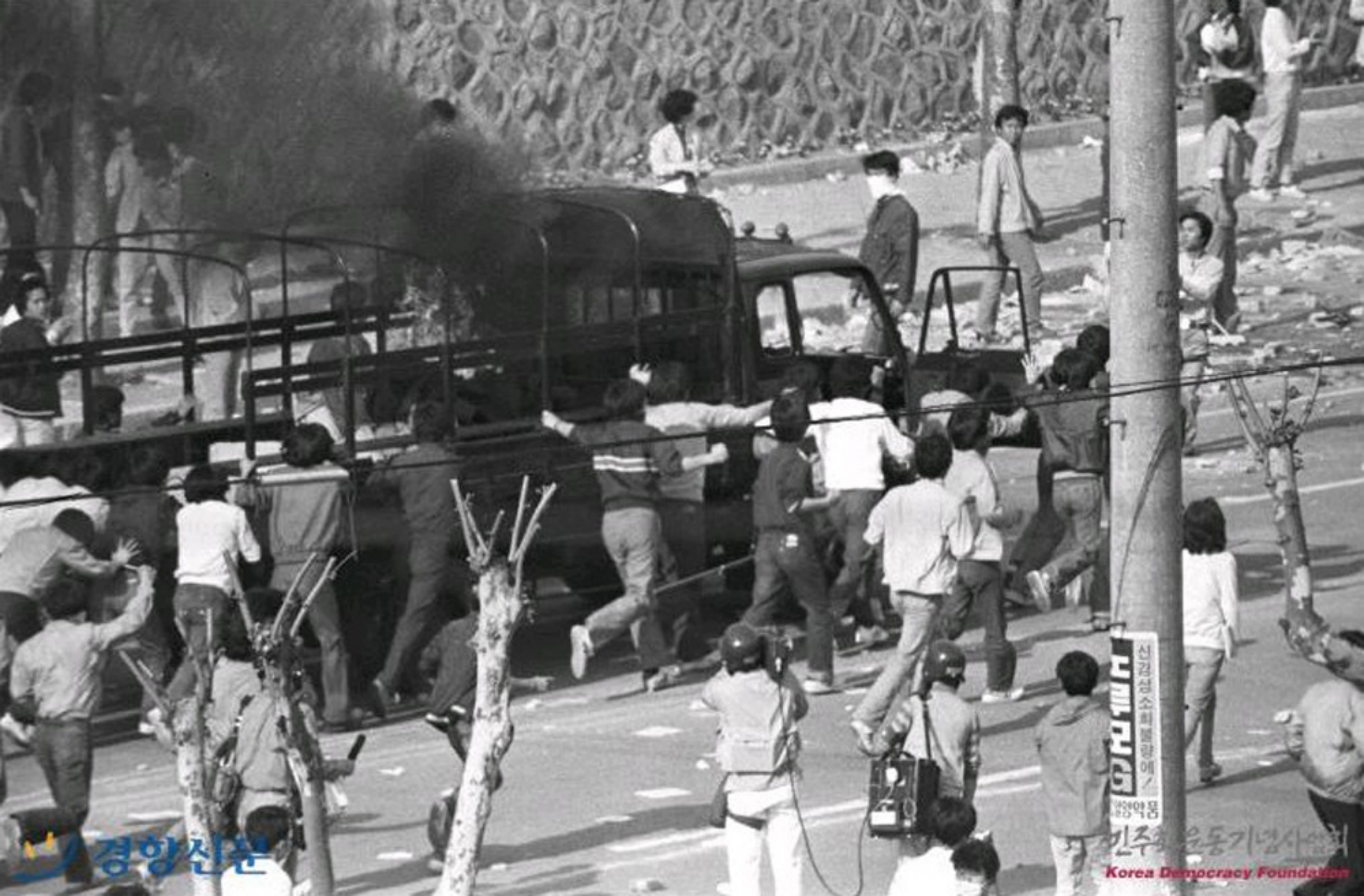
1986년 5월 3일 야당인 신민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추진위 경기.인천지부 결성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재야인사.학생.노동자들의 격렬한 시위와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무산됐다. 사진은 민통련이 이날 신민당의 행사 장소인 인천시민회관 앞에서 '민주화촉진 인천시민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80년 5월 이후 최대의 시위였던 '5.3인천사태'는 분열된 민주화운동 진영의 자성을 촉발하면서 1년 뒤 87년 6월항쟁의 시발점이 됐다./경향신문 자료사진

양심수를
석방하라
독재!
우리는 거부
노동자여!
노동자여!
민주화운동
Korea Democracy Foundation

경향신문
Korea Democrac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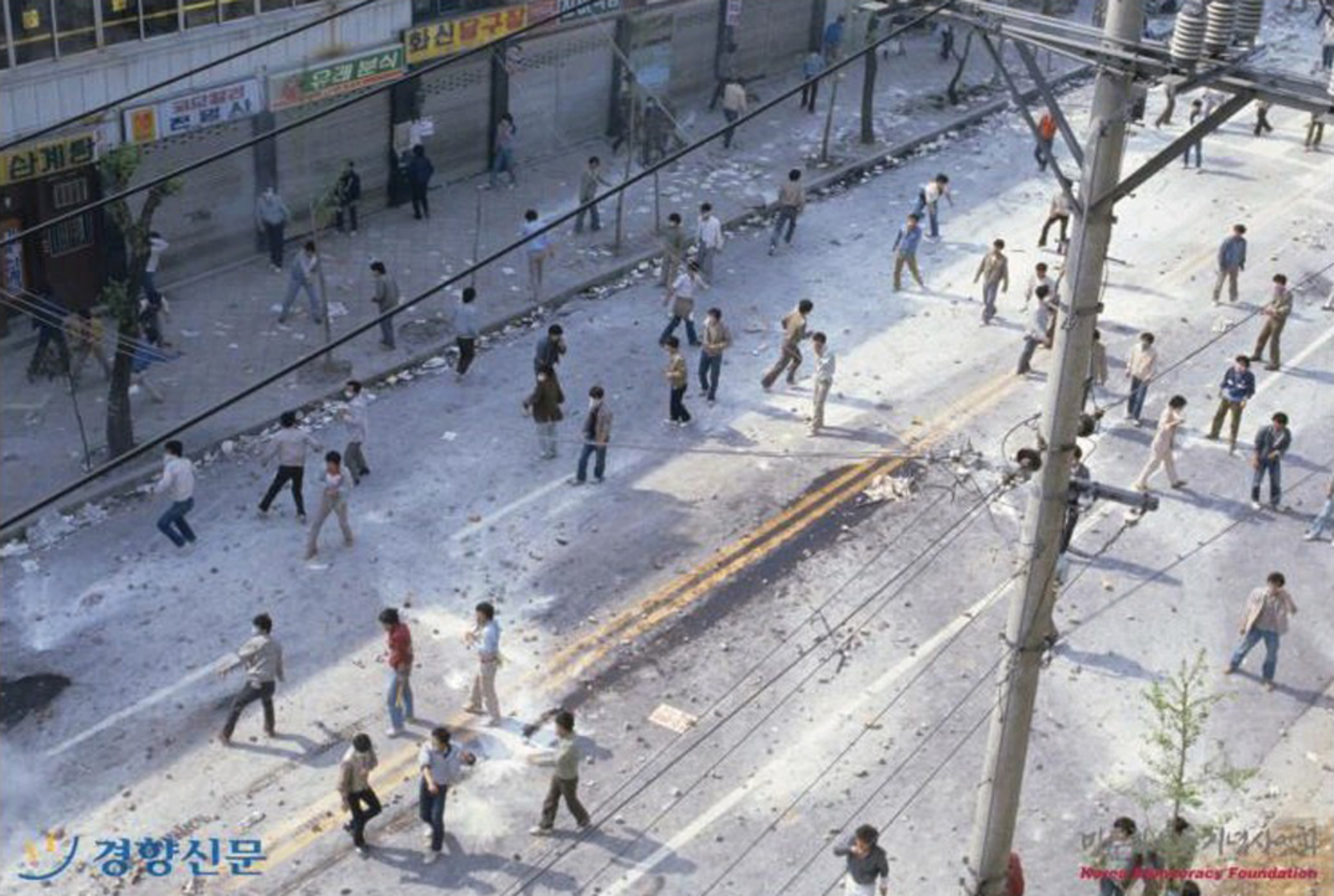
경향신문
Kyunghyang Shinmun


경향신문
Korea Democracy Foundation

경향신문

5·18기념재단
May 18 Memorial Foundation

서독
한 경 원
영 수 회 사
대두
북민수문농협의



경향신문
Korea Democracy Foundation

평양신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경향신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래 분식
화신 당구장
진미식품
시민불고기
경향신문
Korea Democracy Foundation

경향신문
Korea Democracy Foundation

경향신문
Korea Democracy Foundation

경향신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yunghyang Press Foundation

경향신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경향신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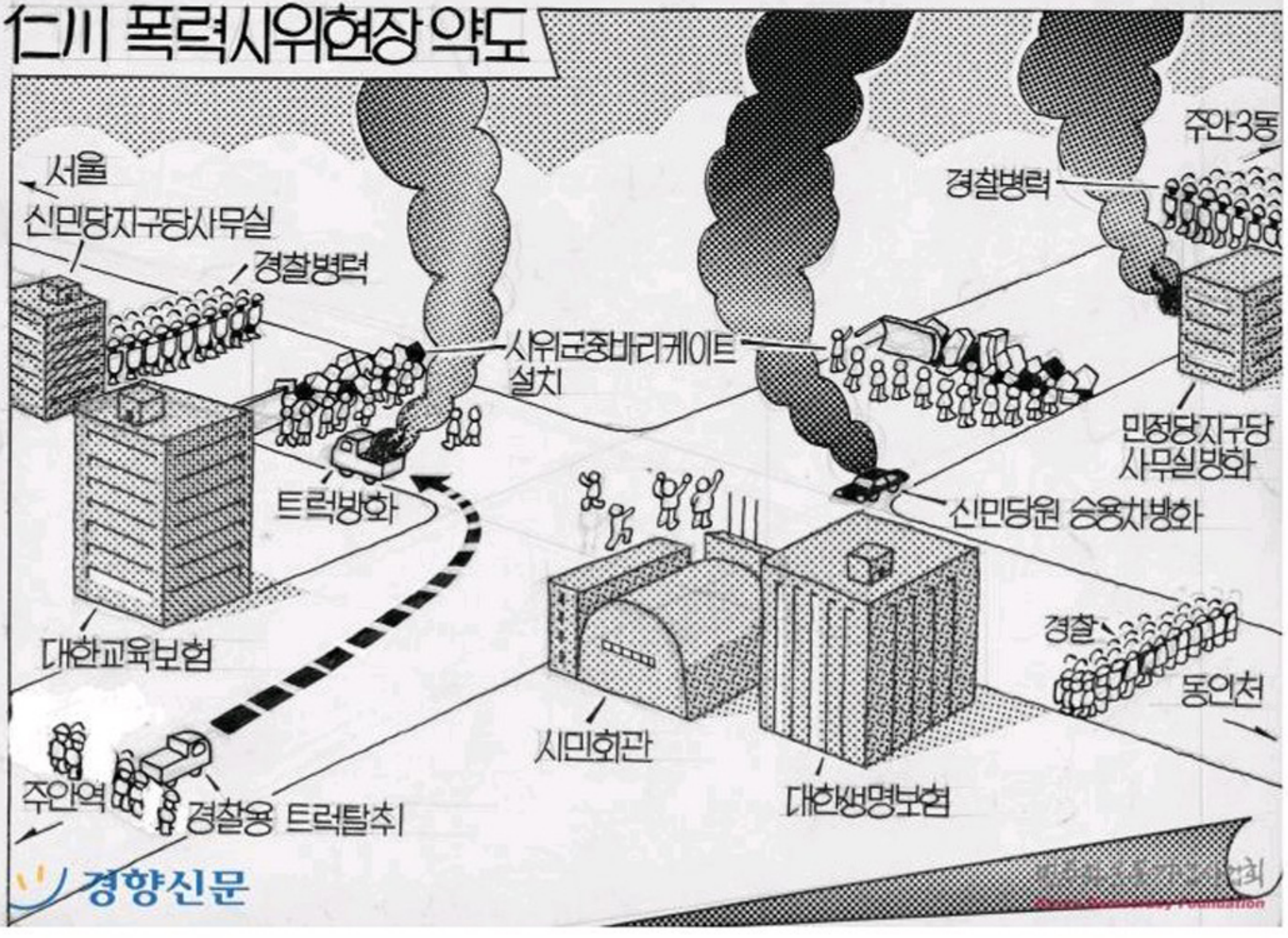
오종범
이비인후과
의원
경향신문

경향신문
민주

경향신문

민주화운동기념자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仁川 폭력시위현장 약도



경향신문

이로부터 4월 대국민 성명은 4월 30일 세계 노동자절 100주년을 계기로 메이데이 총파업설로써 노동자 단압을 가시화하였고 광주, 성남지역에서의 민간인 총기난사는 이 성명을 구체적으로 현상화시켰고 뒤이어 발생한 가야 파출소장의 24발에 이르는 총기난사는 금기에야 동의대 5.3항쟁의 불씨가 되었으며 청년 학생들의, 5.3동지들의 자연발생적 항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김영삼의 배신

이는 간단하게 구국의 결단이라고 자칭하는 90년대 제도 정치권의 최대 변수로써 보수대연합의 확고한 기초마련에 입조한 민자당의 탄생에 가담한 김영삼이의 기회주의적, 정권에 눈이 먼 반민중적 태도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이는 곧 5.3항쟁으로 인한 진보세력의 헤게모니를 역전시키는 데에 성공한 노태우정권에 대한 굴복인 반면에 공인민주당의 잠재되어 있는 계급적 성격이 보수대연합이라는 형태로써 나타난 것이다. 이로부터 5.3조작극의 공범으로써 스스로 규정하게 되었다.

문민정부하에서의 5.3항쟁

1993년 2월 25일. 김영삼이는 신한국 창조라는 깃발을 든 문민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전국 각지에서 개혁의 팡파레를 울리고 있다. 울려퍼지는 팡파레만큼 이 사회 구석구석의 비리 또한 드러나고 있다. 부정축재와 부정입학, 금융비리, 군내 진급비리, 방산비리.... 수많은 비리가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들의 고통은 비리의 속출과 이에 대한 개혁속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부정축재는 단순하게 재명으로 마감되고 부정입학은 기여입학제로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반민중적 개혁 이데올로기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그것이 5.3동의대 항쟁의 진상 규명일 것이다. 진정으로 김영삼정권이 과거 노태우정권과의 차별성을 가지는 개혁정부로써 민중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역사의 베일 속에 아직도 감추어진 채로 방치되어온 5.3 동의대 항쟁과 5.18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총련이 진정 백만 청년학도의
학문, 생활, 투쟁의 구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정말 민주적인 강화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새로운 결의!!! 힘찬 전진!!!

진보학생 정치연합 동의대(추)

5.3항쟁 진상 규명은 한총련 백만 청년학도의 투쟁의 약속입니다.

백만 청년 학도여
5.3항쟁 진상 규명 투쟁의
연대의 불씨를
청년의 뜨는 가슴에 투쟁으로써 함께 하자.

우리는 알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리척결과 순간적인 개혁조치는 정권교체 후에 민중들이 갖는 개혁에 대한 사회 심리적 현상을 중폭시키기 위한, 김영삼정권의 권력 강화를 위한 기존 6공화국 권력의 해체를 목적으로한 기만적인 개혁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니 모른다면 이제는 알아야 한다. 지난 3.6 사면조치를 통해서, 금융 실명제 유보를 통해서, 4.19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김영삼정권의 개혁조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독점자본의 자본축적에 있으서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하여 '고통분담'이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지독하게 반민중적, 반노동자적 정권임을 이제는 안다.

이에 학문, 생활, 투쟁의 공동체 한총련 백만 청년학도와 함께 세상을 바로 보기를 바라며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 동의대는 5.3으로 얼룩진 우리 효민인들의 명예회복, 아니 100만 청년학도의 명예회복이 걸린 5.3의 진상을 밝혀 내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5.3 항쟁 진상 규명없는 문민정부 기만이다.
화인 감정서 제출하라!
구속동지 전원 석방하라!
국회 청문회 개최하라!
피해보상 실시하라!
살인 주범 노태우를 구속하라!

5.3 동의대항쟁 관계인의 석방을 위한 "진상규명 실현

촉구 백만명 서명운동 제안서"

수 신 : 전국 청년학생 시민사회 단체

발 신 : 5.3 동의대항쟁 공동 대책위원회

5.3 동의대항쟁은 5월 1일 가야 3파출소장의 시민, 학생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총기 난사와 살상적 발단이었음을 밝혀 둔다.

당시 가야 파출소장이 자위권 발동 명령하에 무려 74발의 실탄과 다량 살상용 페퍼포그를 발사하고 500여명 가량 학생들을 쫓으며 총기를 무차별 난사한 사실과 5월 2일 경찰 간부 1명이 학생들의 시위대 근처에 버려져 있다가 피랍되었던 과정과 5.3발생후 두차례 그 전개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난 군사파쇼 정권의 애국 민민 세력의 탄압등에서 드러났듯이 5.3동의대 항쟁은 일반적 실수 농성장 진압과정에서 나타나는 우연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고도의 정치적 음모가 내재된 필연적 결과였다.

특히 7층 화재로 나타난 결과들은 제 민민세력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학생운동의 모험주의적 과격행위로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경찰자체의 분열보다는 그 현실적인 책임을 회피하여 노련적인 전술적인 한 부분으로서의 사이에 끼어 상생하게끔 축소화시키려는 경향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6개월간의 1심 공판과정에서 경찰의 증거가 엉성하게 조작되었다는 것이 당시 현장에서 생존한 전경들의 증언에서도 확인되었다.

지금에 와서는 1심 선고 후로 2심 항소심 재판부에서 반복되는등 5.3동의대 항쟁의 핵심적 고비인 7층 화인부분은 관련기관 (치안본부,시경,검찰,1.2심재판부) 모두가 다르게 주장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행위로 단정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명확한 사실들을 놓고 볼때 그들의 주장처럼 경찰에 따른 자의적 판단에 의한 단정을 내릴것이 아니라 당시상황 그대로 현장을 재현하여 그들의 주장대로 석유를 뿌려놓고 실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재조사 되어야할 것이다.

경찰의 무모한 과잉진압에 대한 수사는 물론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도서관 7층 화재원인 부분은 5.3동의대 항쟁을 밝혀내는데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기필코 규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행적인 전제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문과 허위로 조작된 공소장에 의해 7층 화재로 인한 5.3동의대 항쟁 관련자에 대한 부당한 중형선고는 전원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며 당시 유혈과잉 진압작전을 수립,지휘했던 치안본부 관계자,부산시경국장,진서장등을 즉각 소환하여 재판정에 서게 해야할 것이다.

이에 본 공대위는 그간 지역적 차원에서 머물러 왔던 5.3동의대 항쟁 진상규명 투쟁을 범 국민적 관심으로 새로이 부각시키고 학생들의 행위로 인식되어져 왔던 5.3동의대 항쟁의 본질을 애국민주세력에 올곧하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장으로 견인해 내고자 하는것이 서명운동 본부 결성의 배경입니다. 그간 투쟁의 열매가 선진적 운동세력들에게만 5.3의 올바른 인식들이 공유되었지 대다수 애국민주세력들에게는 5.3의 진상을 제대로 선전해 내지 못한데 대한 자기반성을 가지며 또한 당시 애국민민세력들이 적절히 대응치 못했던 과오들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비록 노태우 군부정권의 탄압이 거셀지라도 우리의 진상규명투쟁을 멈출 수가 없다. 이제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 민민세력이 함께 어깨걸고 나갈때만이 5.3동의대 항쟁의 진상은 만천하에 폭로될 것이다.

동지여, 진상규명 그날 위해 함께 투쟁에 나아가자.

[진상조사특위발표]

경향신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